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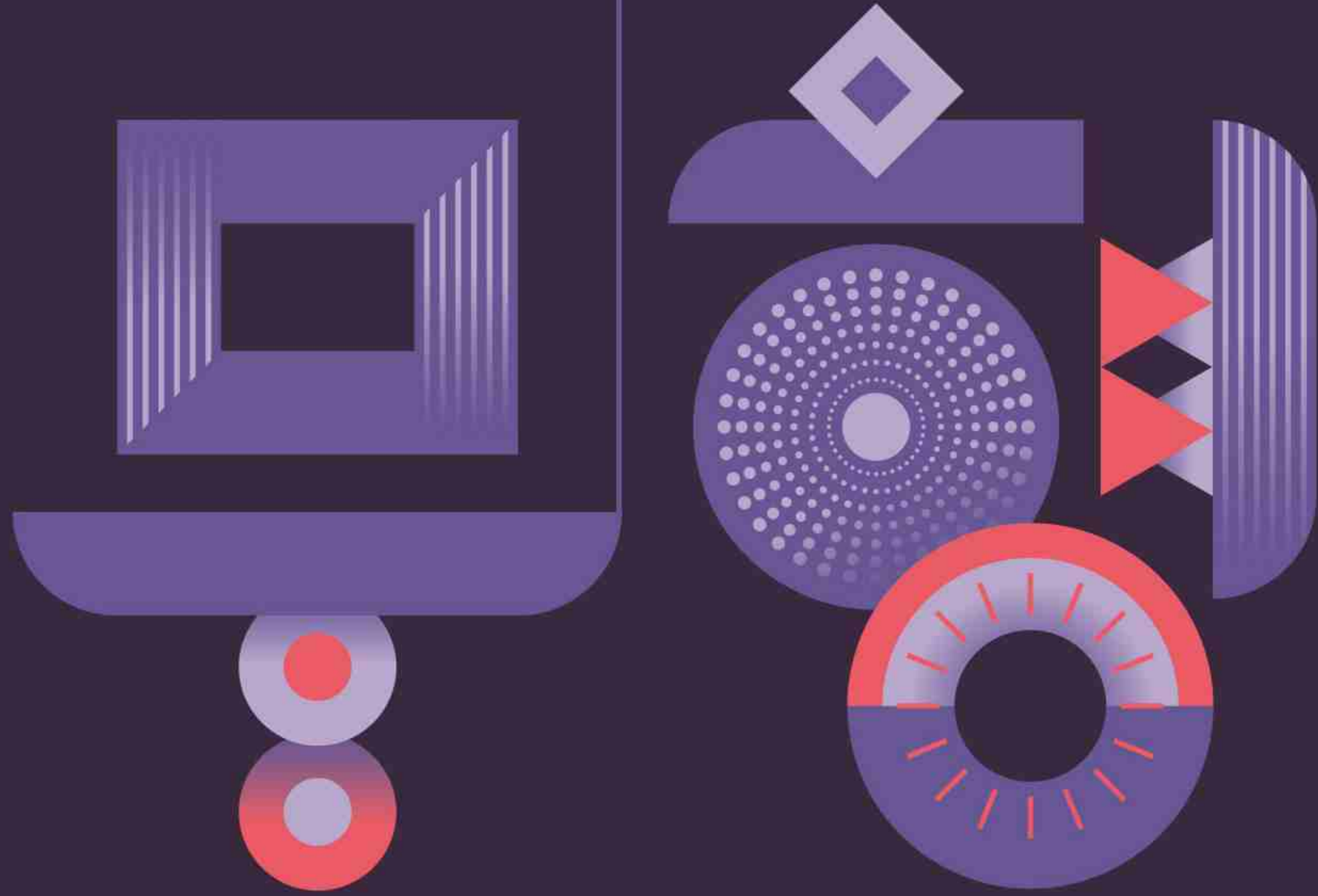
2021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
National Taekwondo Museum Exhibition

2021.
8.31.TUE

—

2022.
2.27.SUN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실^{3층}



무형문화재와 무예, 그 특별한 만남을 담다

Intangible Arts and Martial Arts -
A Special Collaboration

발간사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전북 무형문화재 제55호 '전북 가루기 태권도'의 지정 5주년을 기념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획전 <무형문화재와 무예, 그 특별한 만남을 담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우리나라 전통무예이자 국기^{태권도}로 지정된 태권도가 2016년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무형문화유산으로써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가치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에 태권도뿐만 아니라 전통무예 중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태권과 활쏘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무형문화유산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첫 시도입니다. 그동안 태권, 활쏘기, 전북 가루기 태권도를 각각 다룬 전시는 있었지만, 무예 종목을 종합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전모를 다루다 보니 다양한 유물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대표유물을 이야기하자면, (사)태권보존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초대 태권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 송암 신한승^{1906~1988} 선생과 제2대 태권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 윤암 정경화^{1911~2000} 선생의 예능보유자인정서, 송암 선생의 유품인 수련도구, 윤암 선생의 수련복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 개최를 위해 소장 유물 대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전쟁박물관, (사)태권보존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한 국민의 모든 협조 기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좋은 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장희석 관장을 비롯한 박물관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오 응 환

Message from the Chairman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will be hosting a special exhibition *Intangible Arts and Martial Arts - A Special Collaboration* to commemorate the 5th anniversary of the designation of Jeonbuk Competitive Taekwondo as Jeollabuk-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55.

Ever since Taekwondo,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ational sport of Korea, was named a provinci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16, the foundation has thought long and hard about the value of Taekwondo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se deep considerations are what led the foundation to hold this special exhibition, which, in addition to Taekwondo, explores the values of Taekkyeon and archery (traditional martial arts that have been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long with Taekwondo)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is exhibition serves as the foundation's first attempt to comprehensively explore the different types of martial arts that have been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assets. Although other exhibitions have been separately held to celebrate Taekkyeon, archery, and Jeonbuk Competitive Taekwondo, never before have these different forms of martial arts been comprehensively studied together at one event. In order to celebrate these unique martial arts forms, the exhibition features various artifacts, including: <letters for the appointment of Taekkyeon masters Sin Han-seung> (appointed as the first master of Taekkyeon) and Jeong Gyeong-hwa (second master) that were previously owned by the Taekkyeon Preservation Society; various training tools belonging to Master Sin; and training clothes worn by Master Jeong.

In closing, I'd like to thank the following organizations for their active cooperation and for lending parts of their collections for this special exhibition: the Ganghwa History Museum; the Ganghwa War Museum; the Taekkyeon Preservation Societ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Presidential Archives. In addition,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staff of the National Taekwondo Museum, including Director General Jang Hoi-sik, all of whom have been instrumental in arranging such a valuable exhibition.

Oh Eung-Iwon
Chairman of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전시

총괄
이동현

전시기획
유성희

전시감독

유성희 (전시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 전시의 운영을 총괄함)

전시실 운영지원

김현진, 김희진, 이경림

자금확정

스튜디오 11

공공포수

이희재

전시디자인지원

이경진

공공협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현대미술관)

신원문화재단 (신원문화재단)

신원문화재단 (신원문화재단)

자료 협조기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대통령기록관

대한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방송(KTV)

(KTV) (KTV)

참고문헌

- 도록에 실린 도판의 저작권은 해당출판사에 있으며, 도록의 제작에 모든 내용 및 자료는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이 책은 국립현대미술관이 2021년 9월 11일(수)부터 2022년 5월 27일(금)까지 개최된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주제, 그 특별한 공간을 위한 전시(주제)이다.
- 도록의 수록된 모든 글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내용 전개 및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외국어를 병기하였다.
- 도록은 전시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의 다른 자료에도 수록하였다.
- 모든 것에는 이름(국문·영문)·시대·크기·현장의 수치가 글자로 표기하였다.
- 도록이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에는 소장처 표기를 생략하였다.
- 유물의 크기 단위는 cm이고, 재료·기법·놀이 순으로 표기하였다.

목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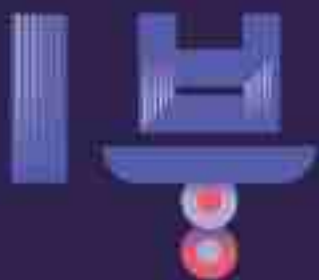
말씀사	00
<hr/>	
프롤로그	00
1부 부활절화제, 긴 길에서 깨어나다	00
2부 부활절화제, 무서워 만나다	
첫째 이탈, 국가부활절화제 제7호, 해산	00
둘째 이탈, 국가부활절화제 제1호로, 환호기	00
셋째 이탈, 전북 부활절화제 제5호, 전북 바꾸기 위원회	00
3부 부활절화제, 무어 속 새권으로 본다	00
전지삼 권리보기	00
<hr/>	
종교	00
드림운동	00

프롤로그

Prologue

(무형문화재와 무예, 그 특별한 만남을 담다)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에 관해 살펴보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무수보다는 문무를 숭상했던 문화가
부리 깊어 무예와 관련된 기록은 극히 일부이고,
전수받은 인물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예인들과 학계의 많은 노력과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여러 무예 종목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를 한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

Intangible Arts and Martial Arts - A Special Collaboration is an exhibition that aims to provide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martial arts in Korea that are officially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Korea has a long tradition of holding civil officials in higher regard than military personnel, including martial artists, which explains why there are so few records and historians dedicated to the Korean heritage of martial arts. This exhibition details the academic and administrative efforts that were made across all levels of society to ensure that Korean martial arts were properly recognized and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by the Korean government.



무형문화재,
긴 잠에서
깨어나다

The Great
Awaking of
the Intangibles

1962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무형문화재보다는 국보나 보물과 같은 유형문화재를 발굴·보존하는데 주력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며, 2003년 제32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사랑저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무형문화재에 대한 개념과 범주가 확장되었다.

It was in 1962, seventeen after the 1945 Liberation, that Korea establishe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is law were largely focused on the excavation and preservat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s, now designated as Treasures and National Treasures, rather th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the 1990s, a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began spreading worldwide, and in response, in 2003, the attendees of the 32nd UNESCO General Meeting officially adopt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veral years later, Korea similarly established 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expanded upon the concepts and categories of the things conside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2021년 기준으로 국가부형문화재는 총 150건이 지정되어 있다. 그 중 2000년대 이전 지정된 부형문화재는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부형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중요부형문화재 보유자들을 초창에 오찬을 즐기기도 했다.

대통령행사말씀록

일	시	1998년 12월 10일(목), 13:00
장	소	경남화 (중)
세	목	중요 부형 문화재 보유자 초창 오찬

○ 사영제 : 최광수가 중요 부형 문화재 보유자 초창 오찬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중요 부형 문화재 종로 세재역에 최광수 보유자인 김현호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 김현호 : IMF 경제 위기의 극복과 제2의 건국을 위해 국가 일에 여념이 없으신 거문대에서도 대통령께서 중요 부형 문화재 보유자 친필로 초창에 주치어 문화자질 대표로서 전심으로 감사봉 드십니다.

문화재계의 오랜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던 차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국감으로 차제들을 초창에 격려해 주신 것만 다가오는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대통령으로서의 피아제를 최고로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전통 문화에 뿌리인 부형 문화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문화재계에서도 재2 건국에 적극 동참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식 축하연설

Congratulatory speech given at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1488201469

2006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 아태무형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0년 공사에 착공한 후 2013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출범해 2014년 개원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대대손손 생명력을 더해가는 무형 유산 전승체계를 마련하고, 무형 유산의 관용을 통한 국내외 가치 확산을 목표로 주요 사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개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축하메시지이다.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식 축하영상메시지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형유산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정서가 담긴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게 귀환 단절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선조들의 정령과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전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계무형유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힘 같이 도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형유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시면서 후손에게 전하려면, 보존하면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세계화도 중요합니다.

관심이 여러분께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형유산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이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갖고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더욱 더 깊이 인식하여 전통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본오래의 문화유산은 전국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으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04

무형문화재법 변경 및 확대

Revision and expans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한국문화재단 연구자료

박근혜 정부에 들어 2015년 3월 27일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호법」을 독립된 법률로 분리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제정했다. 2016년 3월 28일부터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어 무형문화재에 대한 개념 및 범주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초청한 오찬을 가지거나 해외 순방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동행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4

국가무형문화재 초청 오찬

Invitation Dinner for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ssessors

한국문화재단 연구자료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
- 3월28일 시행 -

무형문화재 보호범위 확대
전통지식·구비전승·생활관습 등 다양한 분야 지정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소멸위험 종족 대상, 전승단절 방지 권방위 지원



2부

무형문화재, 무예와 만나다

Intangibles and
Martial Arts
Heritage in Motion

후학
후손
후원
후계

국기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중 무예 종목으로는 태권, 활쏘기, 권투 겨루기 태권도가 있다. 태권은 무예 종목 중 최초로 1983년에 국기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당시 현암 송익기(1923-1997) 선생과 송암 신한승(1906-1987) 선생이 초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운암 정경화(1914-1993) 선생이 2대 보유자로 인정받아 태권 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북 겨루기 태권도'는 유일한 시도 무형문화재로 2016년에 전북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되었다. 광복 이후 국내에서 태권도가 보급되던 시기에 전북지역에서 행해졌던 태권도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태권도 기술과 규칙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The martial arts that are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by Korea's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clude Taekkyeon, Hwalsoogi (Traditional Archery), and Jeonbuk Competitive Taekwondo. Of these martial arts forms, Taekkyeon was the first, in 1983, to be designated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recognized masters, or practitioners, ("Boju" in Korean) of Taekkyeon were Song Deok-gi and Sin Han-seung, and the current Taekkyeon practitioner is Jeong Gyeong-hwa. Jeonbuk Competitive Taekwondo was designated Jeonbuk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55 in 2016 and still remains the only martial art inscribed on the provincial heritage list. Of the martial arts that have been practiced nationwide under the name "Taekwondo" since 1945, the form of Taekwondo practiced in Jeonbuk is unique in that it involves separate techniques and rules. The historical, academic, and technical value of the Taekwondo practiced in Jeonbuk was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provincial administration of Jeonbuk and was subsequently inscribed on the provincial intangible heritage list.

重要無形文化財第七十六號
 松養 亨漢承 先生

甲子仲秋佳節

2023.10.10
 甲子仲秋

2023.10.10
 甲子仲秋

첫째 마당,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택견은 무예 종류 중 처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통무예이다. 택견은 다른 무예에 비해 스킵하고 섬세하며, 부드러운 곡선의 움직임으로 공격과 방어용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택견은 삼각모범¹⁾인 세 박자의 율보가, 다섯 가지 손놀림으로 이루어진 율보가, 공격과 모체라 할 수 있는 발 기술인 율보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택견을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하여, 선일 송익기²⁾와 후일 송생과 송암 산환승³⁾ 두 스승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임권문화재)로 인정했다. 두 분이 타계한 후에는 송일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문일 정감희⁴⁾ 선생이 2대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되어 택견의 활성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The first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designated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he Korean government. Taekkyeon is characterized by simpler, gentler movements used to mount an effective defense or offense. At its core, Taekkyeon consists of three basic foot movements known as *Pumbagi*, five hand movements known as *Hwalgwanji*, and a series of foot techniques called *Boji* that form the basis of attacks. In 1983, whe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esignated Taekkyeo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76, the government officially acknowledged two senior Taekkyeon martial artists named Song Dae-gi (1833-1987) and Sin Han-sung (1825-1987) as the masters, or practitioners (*Bojwu*⁵⁾ in Korean) of the martial arts form. After their death, the life was handed down to Jeong Gyeong-hwa, who now dedicates himself to promoting Taekkyeon on the global stage.

송 장한승 유물

Personal belongings of the late
Song Han-sung

2015

전통문화재 270

송암 신한승(1918-1987) 선생의 유물로, 앞면 장단에는 세배명인 '세바스찬'과 함께 '인간문화재 제76호 신한승'이 음각되어 있다. 송암 선생은 생전 인간문화재보서의 지부심과 함께 녹실한 권주교인으로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유물 중 하나이다.



001

故 申煥鎔 手帳(손목 시계)

Personal belongings of the late
Shin Hwan-mong (Watch)

37 x 25.5

2008년 11월 1일 현재

송암 신한승(1914~1984) 선생의 유품물이다. 이 손목 시계가 타재하기
전까지 직접 착용하고 사용했던 유품물이다.

002

故 申煥鎔 手杖(지팡이)

Personal belongings of the late
Shin Hwan-mong (Walking stick)

110 x 10

2008년 11월 1일 현재



484

故·신환순 유품(방망이)

Personal belongings of the late
Shin Hwan-sun (34)

2013년

신환순의 친필서신(4)

충암 신환순(1894~1987) 선생이 생전 백전을 수련할 때 사용했던 수련
도구인 방망이와 수리검이다. 백전은 맨손 무예이지만, 충암은 도구를 사용해
수련하기도 했다.

485

故·신환순 유품(수리검)

Personal belongings of the late Shin Hwan-sun
(11th Dagger)

제11호(제11호) 10×14

제12호(제12호) 10×14

제13호(제13호) 10×14

제14호(제14호) 10×14

제15호(제15호) 10×14

제16호(제16호) 10×14

제17호(제17호) 10×14

제18호(제18호)



최진환선 유물(합죽선)

Exemplar de l'ouvrage de l'auteur

Exemplar de l'ouvrage de l'auteur

주제명: 82-089

분류명: 82-089

권: 1

1984년 9월

송암 심란승(1898-1984) 선생이 1984년 9월 21일 중주시에서 개최한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에서 이후 공인으로 백건을 시연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子

好

和

風

舞

子

好

好

扇骨刻字

이주 민속 예능공연 대회

이후학원대 이학중학

(4) 마음 (신제) 1234
때마 1234, 1234
가로 1234, 1234
회무 1234, 1234
치마 1234, 1234
무선 1234, 1234

(3) 대선) ~ 황새들
앞면 1234 1234
뒷선 1234 1234
뒷면 1234, 1234

(24, 20)

(1) 열려 (1) ~ 황새들
관주 1234, 1234
무선 1234, 1234
오름 1234, 1234

(1) 마구채기 (1) 앞
1234, 1234, 1234, 1234
(1) 앞

一九八四年九月廿一日



이마수문~(무늬대)
1234 1234
판부 1234 1234
뒷부 1234 1234
앞부 1234 1234
후시 1234 1234

2345678
(부 1)
(선기) 12345678
(부)
(부) 12345678
(부) 12345678
(대형번화~무늬)
12345678, 22345678



12345678
12345678
(부 1)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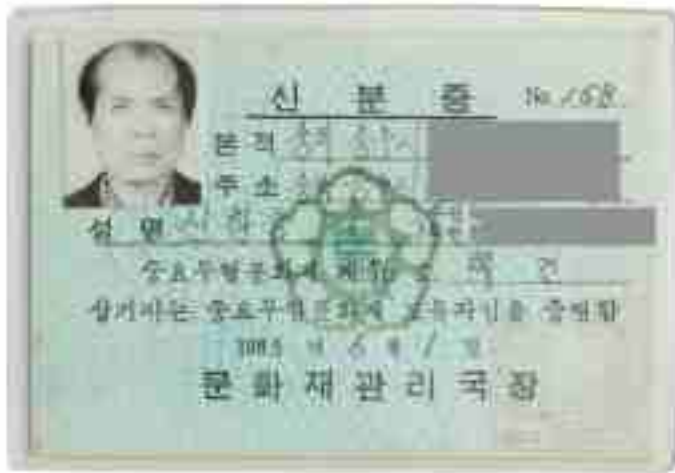
앞부 (부 1)
구판 앞부
뒤판 앞부
뒤판 (부 1)

부 1
부 2
부 3
부 4
부 5
부 6
부 7
부 8

부 9
부 10
부 11
부 12
부 13
부 14
부 15
부 16
부 17
부 18
부 19
부 20



1983년 백전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초대 백전야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출암 신한승(재 1938-2007) 선생과 현암 송덕기(재 1955-2007) 선생이 지정되었다. 당시 출암 선생이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중요 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와 <신분증>이다.



004
故 신한승 유물(중요무형문화재 신분증)
Personal belongings of the late Shin Han-seung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tioner ID)
1983년 8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



005
故 신한승 유물(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Personal belongings of the late Shin Han-seung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tioner Certificate of
Shin Han-seung)
1983년 8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

명인패(대한민국 무예 명인)
 "Master" Title(Martial Arts Ma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192x118
 신원희(신원희씨)

(사)한국무술총연합회가 총합 '신원희씨 무예패' (192x118) 선정패를 수여한 (대한민국 무예명인)상패이다. (사)한국무술총연합회는 2003년 권립권 단체로, (사)한국무예총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한국무예총연합회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무예 단체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예 발전과 무예문화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홍진환의 사진

Photography of the late Mr. Hong Jun-hwan

1924-2008

전통문화진흥원장

홍진환 선생의 사진은 1958-1967 선생의 깊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이다. 홍진환 선생은 백건동 준감인 종조부의 일할을 받아 어릴 적부터 태권을 배웠다. 이후 대학에서는 태슬링과 유도를 공부하고, 원암 송덕기 도장(1965-1967) 선생으로부터 태권을 전수받았다. 이후 송주에 태권 수련 도장을 설립해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태권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했다.







백건 수련복

The Korean military uniform
of Jung Gwon (1944).

길이 105cm
넓이 104
넓이 71.5
중량 143g/벌
소재 면/코튼

백건은 규정된 복장은 없지만, 예로부터 한복을 입고 수련했다. 수련 복장 또한 지정된 것은 없지만, 백건 복장과 같이 한복을 입는다. 일반 수련생들은 흰색 상의와 하의를 착용한다. 수련복은 윤암 절경화²⁰⁰² 100회 선생의 것으로, 윤암 선생은 백건 증오무협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지 2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수련복을 착용하고 매일 수련하고 있다.



000

정선

Leotards of Young Gyeongju line

2017년 1월

김민정(김민정)

정선은 아랫앞집에 의한 쿠션을 필치하고, 활동성을 위해 착용한다. 실내에서는 미신을 착용하지만 실외에서는 비누리를 신는다. 허리에는 대자(하리피)를 매는데 이는 편을 나누어 액전환을 필일 때 같은 편을 나타내는 것이다.

000

대자(하리피)

Hak of Young Gyeongju line

1998년

김민정(김민정)



000

비누리

Non-ribon of Young Gyeongju line

1998년

김민정(김민정)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ssessor Certificate of Jeong Gyeonghwa

42.2×28.8cm
사서(2면)종이

1995년 제2대 예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윤암 정경희(鄭敬喜) 선생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이다.



택견 공연복
 Taekwon-mul
 of Jeong Gwang-il
 100x110cm
 1998년경

은암 정경화(1908~1998) 선생의 택견 공연복이다. 이는 은암 선생의 스승이었던
 송암 신한승(1898~1981) 선생으로부터 받은 공연복으로 할부 3대 택견
 예능보유자가 봉양한다면 그에게 다시 전해질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임정서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ssession Certificate (2019년)

2019. 12. 10

내외문화재단

(사)백전보존회가 문화의정장으로 부터 받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이다. (사)백전보존회는 국내외에 백전을 전수하기 위해 매년 60회 이상의 전수교육과 더불어 전수 대상자 예비 교육 및 선정과 평가, 예비 이수평가 및 특별 보수 교육 등 전승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둘째 마당,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활쏘기

활쏘기는 역경과 더불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통 무예이다. 활쏘기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활쏘기는 대체로 사뭇스러이 고유한 민족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활쏘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융화시켜서 발굴됨으로써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삼국시대부터는 사포(射簿) 등을 기록을 찾아볼 수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승문원(承文院)에서 활쏘기에 따라 무예가 전래받았지만, 활쏘기는 목예(木藝) 중 하나로 선비들에게 권장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도 고종이 사직당에 활학정(活學亭)을 설립할 만큼 활쏘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갑신정변 이후 무기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내린 활쏘기 금지령으로 인해 서울에 있던 서촌오사정(西村五社亭)·유구정(遊 구정)·은파정(恩波亭)·대우정(大休亭) 등 소수의 대부분 사라져 활쏘기가 위축되기도 했다. 광복 이후에는 대한궁도협회(大韓弓道協會)가 설립되어, 1958년 도입된 원궁(元宮)과 더불어 활쏘기가 스포츠화·대중화되었다. 오늘날 활쏘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예 활동이자 고유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Hwalsoogi (Traditional Archery) is another form of Korean martial arts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t has been designated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42. Although archery—the art of shooting arrows with the use of a bow—is practiced in man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raditional Korean archery was inscribed on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list in 2020 because its founding philosophies and techniques were recognized as essential parts of Korea's cultural heritage. The archaeological discovery of stone arrowhead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show that archery has been practiced in Korea from prehistoric times. Historical records also indicate that the martial arts form dates back all the way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1st c. BCE to the mid-7th c.). The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implemented a policy of “worshipping the knowledge of the humanities and suppressing military influences.” However, the people of Joseon still revered archery as one of the “Six Arts” to be mastered by the dynasty’s liberal elite. In 1869, Emperor Gojong built an archery pavilion called Hwasungjaejeong, located in present-day Sajik-dong in Seoul as an effort to promote archery among his ministers. Unfortunately, however, a dramatic change in the use of military weapons after the Gabo Coup in 1894 and the banning of archery by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led to the closure of the five main archery pavilions (Jeonggwanjeong, Deungmangjeong, Ulyeongjeong, Hwasungjeong, and Pungsojeong) in west downtown Seoul and a drastic decline of the sport. Although archery had been practiced in Korea for centuries, the Korea National Archery Association was first established until 1945, when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The arrival of Western-style archery in 1959 had a great impact on the popularization of archery among the general public. Today, archery is one of Korea’s major outdoor activities and is regarded as an important part of Korea’s cultural heritage.

044

활(세궁)
(Se-gungmulbow)
196x50
고려(高麗)시대

세궁활은 대궁 활이라고도 한다. 길이는 6자(182cm) 정도이고 궁중의 행사나 함음주례(宴音酒禮)에 사용되었다.



400

관(牛角)

How (hornbill)

14x35

고려시대(14세기)



줄(각궁)
 (Jeo (Gakgong))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활이다. 대나무나 팥나무로 활몸통을 만들고 물소나 양의 뿔, 소의 가죽이나 털을 뿔에 덧대었다. 또한 각궁은 활곡률(力率)이므로, 길이가 짧고 가볍다. 각궁은 휴대하기에 좋아 실전 연습 외에 등이 모두 활용되었다.



001

황금가공
Bun (Bun) band
41cm
황금(18K)가공



수업부피에 비해, 그 특별한 만남을 기다리다



화살(유엽전)

Arrow (with leaf arrowhead)

2014.4

경주박물관출품

화살은 재료에 따라 적전¹⁾과 활전²⁾이 있고, 기능에 따라 세전³⁾, 권전⁴⁾, 등개살, 세전⁵⁾, 유엽전⁶⁾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유엽전은 화살촉이 비나무 잎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조선시대에는 집현종의 연습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죽이 닳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쓴 화살은 다시 찾아 보관했다.



동양(유명선)

Shimizu Seitaro (1876-1958)

(A.3)

유명한(유명선)







지승포드문화살통

Epaenatal gnomes with gape drome

간베리도 1번
 무늬의 종류
 지승포드문
 고대문화유산

화살통(箭筒)은 화살을 넣어 외부 충격과 습기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다. 전통적으로 대나무, 오동나무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줄기와 가죽, 인조가죽을 소재로 만든다. 화살통은 무관들이 사용했던 것과 문관을 비롯한 문인들이 취미삼아 활을 쏘는데 사용했던 것은 규격부터 달랐다. 즉, 무관들이 사용했던 화살통은 길이 40~50cm, 둘레는 4~9cm 정도였지만, 취미삼아 사용했던 화살통은 길이가 80~100cm, 둘레는 15~25cm 정도였다. 화살통의 표면에는 송죽문, 십장생, 호랑이 등을 새기거나 무관의 상징을 표현하는 글귀를 새놓기도 했다. 보통 화살 10~15개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다.





空無
일사귀를 놓다



正心
마음을 바르게 하라



前權山 無照堂尾
앞 손은 배산을 잊 듯 하고
뒷 손은 밭 꼬리를 잡듯 하라



求己
자기 자신에게 구하라

각궁과 화살통

Flussbogen und Kasten

각궁 41x20cm
화살통 20x10cm
전통적 사냥도구
고려시대 제작



세

화살통

Q306

연장: 39.7

주산지: 4.4

가늠자: 3.5

고려시대(14세기)



세

화살통

Q307

연장: 38.5

주산지: 4.4

가늠자: 4.7

고려시대(14세기)



화살통

Quiver

조선시대 15.3

무신시대 4.

조선시대 4.

고려시대 15.3





親



反本誠已 不怨勝者
 불이러 자삼에게 굴러고
 승자를 원망하지 않코



一心轉力 金石可透
 하나마의 마음으로 힘은 돌리면
 쇠나 돌도 뚫을 수 있다



法



君子不可欺 一抄六節
 군자는 속여 알레 미사되도 있을 수가 있다

관공보관함은 활 시위를 보관하는 함이다. 활 시위 뿐만 아니라 활 화살 등을
 제작할 때도 동판 뿔이나 뼈 가루, 나무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그중 활 시위는 식물 섬유나 동물 힘줄로 만들어져 보관함에 넣어 외부
 습기로부터 보호했다.





셋째 마당, 전북 무형문화재 제55호, 전북 겨루기 태권도

전북 태권도 역사는 곧 우리나라 태권도 역사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1950~60년대 개최된 초기 태권도 겨루기 대회에 적용된 규칙과 기술 등이 전국에서 개발된 것들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 태권도가 경기화를 이룩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전일섭 단장이 이끄는 지도관이 전주에 터를 걸은 뒤 전일교류전과 지역대회 등 다양한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북에서 태권도 대회가 활발하게 개최된 것은 다른 지역 태권도와 차별화된 특성 때문이다. 당시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실전 타격을 금지해 주먹이나 발이 상대 몸에 닿기 직전 공격을 멈추었지만, 전북에서는 실제 타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게 했다. 전북에서 겨루기 태권도 기술이 특히 발달하고 여러 겨루기 대회를 치러내면서 1962년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 경기는 전북 겨루기 규칙으로 경기가 치러졌다. 이와 같은 전북 겨루기 태권도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기술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아 2016년에 전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It is often said that the history of Jeonbuk Taekwondo is the history of Taekwondo in Korea. This popular saying stems from the fact that a great majority of the Taekwondo rules and techniques used today originated from the Taekwondo sparring events held in Jeonbuk in the 1950s and 1960s.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into a modern sport in Jeonbuk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the efforts of Jeon Ee-seop, who ran a Taekwondo Dojang in Jeongju and hosted a variety of sporting events, such as the Korea-Japan Taekwondo championships. Taekwondo thrived in Jeonbuk largely because the form of Taekwondo practiced in Jeonbuk was distinctly different from forms practiced in other areas. At the Taekwondo sparring events held in Jeonbuk, competitors were allowed to actually attack and knock down their opponents, while at events in other areas, they had to stop just before their fist or foot actually made contact with their opponent. Jeonbuk's development of Taekwondo sparring techniques and its frequent holding of events led to Taekwondo being named a demonstration sport for the Korean National Sports Festival in 1962. The Taekwondo sparring events held at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followed the same rules as the sparring events held in Jeonbuk. In 2016, Taekwondo's historical significance, techniques, and role as a representative Korean sport led to its inscription on the Jeonbuk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제46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Medal from the 46th National Sports Festival

47x3.5

1965

국립중앙박물관

196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던 최건열 사모님께서 획득한 전국체육대회 메달이다. 메달도는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후 전주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전국 시·도를 중심으로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종합경기 대회이다.



제47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Medal from the 47th National Sports Festival

종류

메달

직접제작



제48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Medal from the 48th National Sports Festival

종류

메달

직접제작



44

제49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Model No. 161 49th National Sports Festival

4.2×3.7

1998

9.52g 75%



45

제50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Model No. 161 50th National Sports Festival

5.4

1998

9.52g 75%









443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from the 44th National Sports
Festival
22×27
1990
조선말 기념

445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from the 44th National Sports
Festival
22.5×27.5
1990
조선말 기념

444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from the 44th National Sports
Festival
22.5×27.5
1990
조선말 기념

446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상장
Award Certificate from the 50th National Sports
Festival
22.5×27.5
1998
조선말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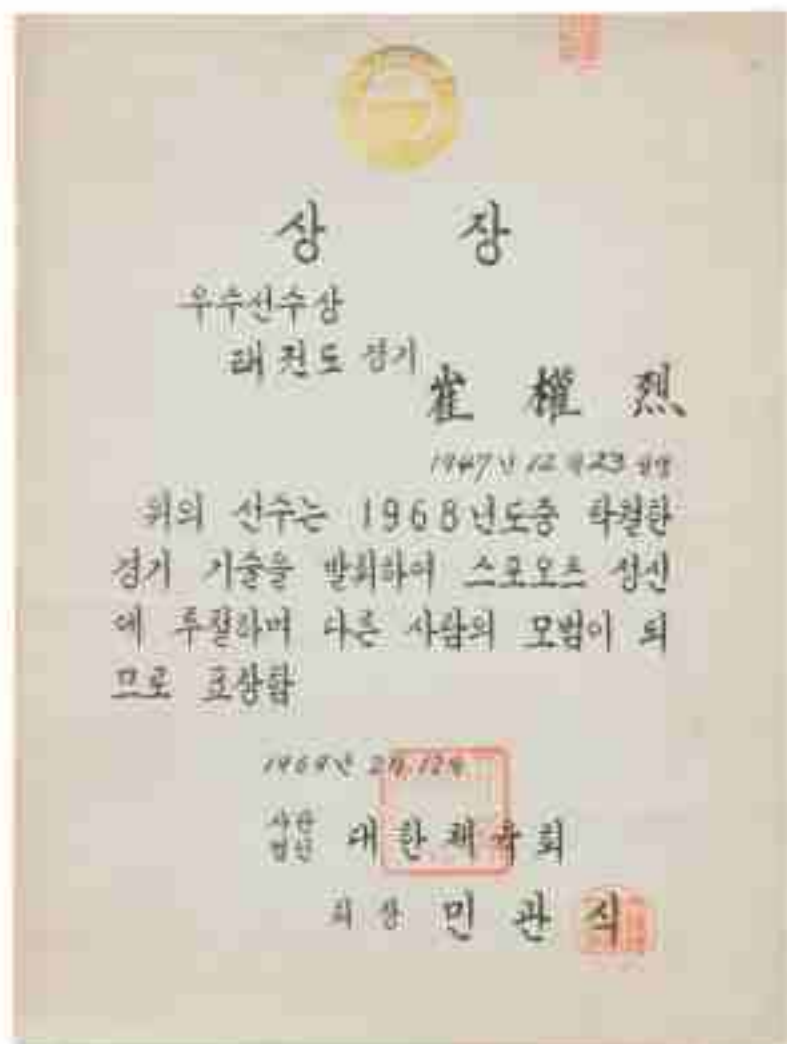
우수선수 상장

'Honorary Address' award Certificate

25.5x38

1968

국립현대미술관



제2회 개인전수권대회 메달

Medal from the 2nd Individual Championships

8.7 x 3.6

7968

조선총독부

최관열 사범님께서 제2회 개인전수권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이다. 메달 뒷면에
 양자관 "신복태수도협회"를 통해 태권도란 명칭이 공식 제정되기 이전에 개최된
 대회임을 알 수 있다.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메달

Medals from the Korean Excellence Athlete

Selection Contest

- 1. 1960년
- 2. 1962년
- 3. 1964년
- 4. 1966년
- 5. 1968년

1960년대 초 개최된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 중 최중 경기는 현재 국가대표 선발전과 같은 성격이었다. 1960년대 왕성하게 활동했던 최관열 사범님께서 한국우수선수선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과 상장들이다.



賞状
(한국유수현수현상대회)

Award Certificate (Korean "Yusoo" Exhibition)

1. 44.5x22.5

1982

2. 44.5x22.5

1989

서화사 7장



1.



2.

장상
(대한교일본국원정
파견선수선발대회)

Award Certificate (Taekeudo Japan Selection
Committee Japanese Expedition)

44.3x32.3

1966

국립중앙박물관

최권열 사부님께서 1966년에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개최된 일본과 파견선수 선발전에서 획득한 상장이다. 중기부와 고기부로 나눠 경기를 운영했으며, 각 부 별로는 권급 플라이급·반담급·페더급·라이프급·웰터급·미들급·헤비급의 5개 재급으로 나뉘어 대회가 개최되었다.



전라북도 체육상 메달

Medal from the Jeollabuk-do Sports Award

87x53x2.2mm, 9.9g

1965

지정품 11종

1965년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수여한 체육상 메달이다.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최관열 사범님께서 기증하신 유물로, 한 해 동안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선수에게 수여했던 메달이다.



권라북도 체육상 트로피

Trophy from the Jeollabuk-do Sports Awards

19.2x46

1805

국립현대미술관

매년 권라북도체육회에서 그해에 활발히 활동한 권라북도 출신 선수에게 수여했던 트로피이다. 현재도 매년 연말 각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1960년대 활발한 활동을 했던 최권열 선생님에서 수여받은 트로피이다. 하단에 "1969년도 권라북도 체육상"이 글자되어 있다.



001

태권도 지도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 자료

Research materials used to apply for Taekwondo as the designated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5.12.24~2017.2018

002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서

Jeollabuk-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rtification for Taekwondo

2015.12.24~2018

003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준학 지정 신청 자료

Research materials used to apply for Taekwondo as the designated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8.12.24~2019



2016년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전북 겨루기 태권도'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 자료와 신청 자료이다. 신청 자료 중 하나인 태너무 호구는 전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품종 보호구의 복원본이다. 특히 복원본을 제작할 당시 최초의 품종 보호구를 만들 때 참여했던 유병용 사범님께서 직접 참여했다.

04

대나무 호수(여권공)

Bamboo Pond(Hipolacion)

87-93

2014



3부

무형문화재, 무예 속 태권도를 품다

Intangibles,
Martial Arts
and Taekwondo

우리나라 역사상 삼국시대를 제외하고 무예와 무권^{무예}이 숭상받던 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문치주의^{문치주의}를 표방해 무예보다는 예학^{예학}과 경학^{경학}을 중시하고, 무권보다는 문권이 이 나라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으로 당시까지 남아있던 전통무예가 사라지게 되었다. 광복 이후 정부의 민간을 중심으로 사관자 가는 전통무예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태권·태권도·펜싱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전승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전통무예 중 하나인 태권도는 1970년대부터 국제 태권도 경기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980-90년대 들어 태권도 경기 대회 운영방식은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러 태권도 기술, 경기 운영방식 등을 국제 대회의 기준에 맞도록 개선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며, 태권도는 경기종목으로 강조되었다. 하지만 2016년에 전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태권도계의 학계에서는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는 주목하게 되었다.

With the exception of record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re are few historical records showing a reverence for martial arts or military officials. The ruling classes of the Goryeo (918-1392) and Joseon (1392-1910) dynasties, for example, valued civilian leadership over the military, knowledge of rites and Confucian classics over martial arts, and civil officials over military offici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designed by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to eliminate any traces of Korean culture,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s almost completely disappeared. After the Korean liberation in 1945, the Korean government, together with the Korean people, began efforts to revive the traditional martial arts, eventually culminating in the inscription of Taekkyeon, Taekwondo, and Hwallassogi (Korean archery) on the list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f these art forms, Taekwondo was the first to gain global recognition. Taekwondo saw its first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1970s and continued to develop in the 1980s and 1990s, meeting international event standards for adoption as an official Olympic sport, beginning in 2000. In 2016, Taekwondo was designated a Jeonbuk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using members of the academic and Taekwondo communities to more deeply consider the value of the martial art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990년대에 들어 태권도계에서는 태권도를 학문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학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된 이후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학문으로 연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태권도 학과가 설립된 것은 용인대학교이며, 1982년 개설되었다.



1990년대부터 태권도발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 국내 태권도 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내 외 태권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그중 국기원은 2006년 태권도연구소를 설립하고, 2010년에는 학술지인 『국기원 태권도 연구』를 창간해 태권도 교육·산업·경기기술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국제태권도심포지엄은 태권도진흥재단과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005년 설립된 이후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에 주목해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를 주관·주최했다. 그중 2006년부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와 공동주최했던 학술대회 자료집이다. 이는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태권도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대회였다.





태권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물

Survey and research reports on the feasibility of designating Taekwondo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2019년 4월 18일 / 142×214×0.5

국립민속박물관/한국문화재단 연구실/국립민속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신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원북 카부기 태권도>의 국가무형문화재로 전환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 연구 성과물이다.



제3회 국제여자태권도오픈 선수권대회 기념 메달

Commemorative medal from the 3rd
International Women's Taekwondo Open
Championship

국립중앙박물관

태권도는 성인 남자들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 태권도가 경기화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과 여자부 경기가 신설되었다. 1968년 6월 16일에는 제1회 주한외국인개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970년에는 제1회 여자부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다양한 계층에서 태권도를 향유하며, 1973년 창립된 한국 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을 비롯해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등과 같은 단체가 창단되었다.



한국여성태권도 기념품

Keunyeon from the Korea Women Taekwondo
Federation

국립중앙박물관



04

한국초등학생 기념패

Commemorative medals from the Korea
Elementary School Teachers' Federation

213



05

한국초등학생 기념장

Medals from the Korea Elementary School
Teachers' Federation

213-1A



98

한국공고등학교태권도연맹
기념패지

Commemorial badge from the Korea Junior
Taekwondo Federation

11



99

한국공고등학교태권도연맹
기념품 (넥타이)

Scarf from the Korea Junior Taekwondo
Federation (Necktie)

112x542D



전국중·고등학교태권도선수권대회
우승메달

Commemorative Medal from the Korea Judo
Taekwondo Federation

1977년
1877
120x75mm

1977년에 개최된 제13회 태권도협회장기생일전 겸 제4회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선수권대회 중등부에 참가했던 평안규님이 기증한 메달이다. 1974년
국기원에서 제1회 전국 중·고등학교태권도선수권대회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제15회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고등부 메달

Medal from the 15th National Taekwondo Team
Competition, from the high school category

9.2x10
1980
30000 700

1980년 대통령 하사기 제15회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고등부에 참가했던
방안규님이 기증한 메달이다. 대통령기 제15회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는 1980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대회가
열리고 있다.



제2기 국제소년태권도대회 메달

Medal from the 2nd International Junior Taekwondo Championship

8.7×28.5
전원금 기증

세계소년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한 국제소년태권도대회 메달로,
당시 연맹의 총재였던 안해옥님께서 기증해주셨다.



ITF 인증
ITF Deposition
4082250
1970

국제태권도연맹(ITF)에서 발급한 인증이다. 당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급한
단종되는규격, 양식 등이 다르다.



국제태권도연맹(ITF) CI가 들어간 배지와 임치고리 등의 기념품이다. 국제태권도연맹은 1966년 3월 22일 서울에서 미국, 이탈리아, 서독 등 9개국이 참가해 창립되었다. 1972년 캐나다로 본부를 이전한 뒤 현재까지 ITF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태권도연맹 사범 도복

ITF Uniform

번호

1225-4

소재

주사포 27

길이 1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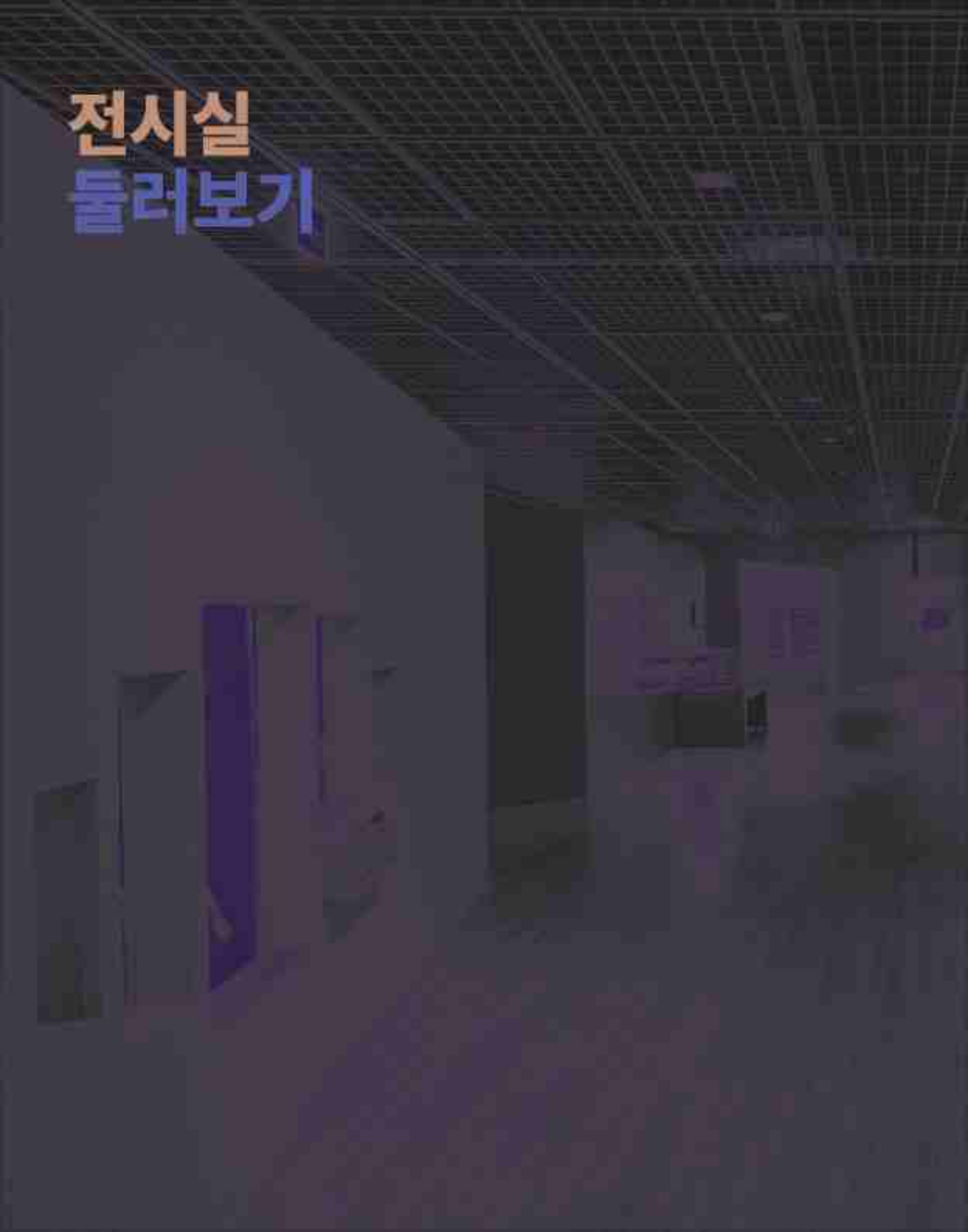
길이 100cm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사범 도복이다. 국제태권도연맹 도복은 유급자, 유단자, 사범 도복으로 나뉜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의 유단자 도복은 검은색 깃과 빅스 형태의 브이넥(V-neck)이다. 반면 ITF 사범 도복은 상의 소매와 허단, 하의의 양 옆에 검은색 띠가 둘러져 있으며, 개방형 상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시실 둘러보기

























Essays

두병을 화재로서 백권의 가치와 의미

신종균

『기묘한 일화』 『가을, 겨울, 봄과 여름』 『그림의 계절』 『계절』

전통 칠소기의 기원과 변천

홍필

『전통 칠소기』 『전통 칠소기』 『전통 칠소기』

겨루기의 시작, 전통, 태권도의 가치

최용규

『전통 칠소기』 『전통 칠소기』

무형문화제로서 태권도의 가치와 의의

신종근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태권도진흥위원회 / 2014년 체육학 박사

1. 서론

종잡기라는 독특한 보법과 활갯짓이라는 유연한 몸짓으로 태권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는 무예보다 춤으로 인식한 사람이 많았으며, 태권이라는 용어만 듣고는 태권을 개무를 선택하는 것 이나고 할 정도로 태권을 모르던 시절이 불과 30~40년 전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태권의 특 특한 공놀임 때문에 외국에서는 개그의 소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권의 다소 춤 같은 부드 러움과 우리나라 고유의 공짓인 농천거림·공원거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 고 독창적이며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공짓이다.

이러한 독창성과 고유성 때문에 무형유산의 분야에서 태권은 국내 최초,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 가 할랄 따라다니는 무예이기도 하다. 국내에선 1983년 6월 1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당시 에는 무예 분야의 문화재로서 국내 유일이었지만, 현재는 씨름, 활쏘기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서 국내 유일이자 국내 최초로 무예 분야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무예가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판을 때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2012년 12월 28일에 등재되면서 당시 무예 분야에서 유일하였지만 지금은 각국의 여러 무예들이 앞다투어 등재되면서 유네스코 인류 무 형유산에도 무예 부문 세계 최초로 등재된 무예이기도 하다.

태권의 무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상대를 공격하기 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순 간까지 상대를 배려하는 무예가 태권이며, 부드럽고 곡선적인 공놀임으로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하 여 제압당한 상대가 다치지 않고 스스로 풀려나게 하는 정신이 배어 있는 무예이다.

고구려시대 이전부터 성행했다고 전해지는 태권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와 환경의 변천 에 따라 알리드 교육의 수단, 군사 무예, 여가 시간의 유희 등으로 변화를 지속해오며 현재까지 전승 되어 왔다.

현재 태권의 모습은 조선 후기의 형태가 전승되어 온 것인데, 수련의 목적이 알리드살이거나 직 접 상대를 공격하는 여타 무술과 다르게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스스로 풀려나게 하는 배려의 무예였

으며, 액션을 여가 시간에 상대와 견주면서 즐기면 유희가 되고, 액션을 수련하여 내 몸과 내 가족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호신 무예가 되었다.

특히 개별성과 일체감의 형성을 위해 액션을 둘러 간에 견주는 형태로 실행하게 되는데, 개인만의 단련과 체계적인 수련 체계가 아닌 함께 하고 둘러 간에 권을 나눠 견주기를 통해 공동의 삶과 공동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유성과 크화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동단결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적, 문화적 기능의 실현으로 사회통합의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기동문화의 삶과 애환이 담긴 전통문화이며 우리나라 고유의 민중 무예였다.

이렇게 민중 속에서 상행했던 액션은 우리나라의 많은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해 안명의 위기가 왔으나, 소수의 뜻 있는 액션인들에 의해 연방의 전승되었다.

해방 후 종로액션의 명인인 임호세 의해 전승이 되었고, 송덕기는 임호세에게 권수 받아 근대 액션의 계승이 시작되었으며, 송덕기를 사사한 신한승은 액션의 정립과 체계를 세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그도 인해 무예 분야 중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액션과 무형문화재 지정이 주는 의미와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근, 현대 액션의 보급과 발전에 초석이 된 것이 무형문화재의 지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고서는 액션을 다시 소생하게 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액션의 무형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액션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경위

액션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근, 현대 액션 역사에서 그 어떤 수확보다도 값지며 현재의 액션을 있게 한 버팀목이었으며, 한편으로 액션이 전승될 수 있게 된 절실한 자생수단의 역할을 하였다.

1983년 6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고 송덕기, 신한승이 초대 인간문화재로 인정되었으며, 현재는 두 분 모두 별세하였고 2대 인간문화재 장경화가 그 락을 이었다. 액션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 절차는 <표 1>과 같다.

액션의 초대 보유자 신한승은 어려서 종조부 신재영의 영향으로 액션을 시작했으며, 중학교부터는 근대체육을 접하게 되는데 어려서 액션을 배운 영향으로 액션과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 유사한 태슬련의 국가대표까지 하게 된다. 이후 체육 교사로 재직하지만 어려서 배운 액션을 잊지 못하고 다시 액션의 전승에 전념하게 된다.

하지만 전통문화의 전승은 매우 외롭고 고된 길이었으며, 더군다나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전무한 액션의 계승은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신한승은 본인의 사후에도 액션이 올바르게 전승되려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며, 액션의 올바른 전승과 발전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문화재의 지정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액션의 문화재 지정 추진은 신한승이 처음은 아니었다. 1968년 11월 6일 당시 국제태권도연맹 사무총장인 이현성이 태권도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가 문화공보부로 제출되었다.

그 후 태권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덕기의 액션을 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액션이 태권도와

표 1. 책건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보유단체 선정 경위

연도	내 용	결 과
1971. 11	문화체육부에 제101호 제출(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지정안
1982. 4	책건 신청서	문화체육부 심판안
1982. 7	국립중앙도서관 조사보고서 제102호	국립중앙도서관 심판안
1983. 6. 1	국립중앙도서관 제103호 책건 신청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도서관 제104호 책건 보유자 선정	보유자(송희갑, 신한승)
1984. 12	책건 신청서	문화체육부 심판안(지정안)
1985. 5	국립중앙도서관 조사보고서 제104호	문화체육부 심판안(지정안)
1985. 5. 22	문화체육부에 종로 문화재 관리회 설치	문화재 관리회
1985. 6. 1	국립중앙도서관 제105호 책건 보유자 선정	보유자(신한승)
2012. 3. 8	지정없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됨	책건보유자
2013. 5. 24	제1차 무형문화재 평가위원회 책건 보유단체 신청서, 문화체육부 주관 제1차 평가심사	문화체육부
2013. 7. 12	제1차 무형문화재 평가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제105호 책건 보유단체 신청서	문화체육부
2015. 7. 17	국립중앙도서관 제105호 책건 보유단체 선정 제1차(대우기)·제2차(신한승)에 대해 선정	지정없이 국가무형문화재 책건보유자(신한승)

의 상관성 보다는 권총무예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1973년 4월 문화재 위원 이용래의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02호'가 문화공보부에 제출되지만 액건의 수련체계, 기술 등에 관련된 자료가 미흡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했다.

액건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한승은 액건의 무형문화재 추진과는 별개로 1981년 11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체육학 교수인 오장환을 조사연구 지도 하여 '책건 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의뢰'의 문건을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하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게 되는 전기를 마련한다.

그로 인해 1982년 4월 문화재위원 심동권은 현지답사를 통해 액건 동작을 촬영하여 책건 자료와 함께 1982년 7월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46호'를 문화재관리국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조사자인 심동권은 권총문화를 보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아주 외로운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는 여유만을 남겨 문화재 지정의 밝은 빛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 후 더욱 희박하고 힘들게 기다린 끝에 우리나라 무술계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1983년 4월 11일 조선일보에 책건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제76호로 지정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동년 6월 1일로 정식 지정이 되어 초대 책건보유자로 송덕기와 신한승이 선정되었다.

이로써 당시에 책건은 무예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고, 송덕기와 신한승이 초대 인간문화재로 인정이 되었다.

당시 책건의 정립과 제계를 위해 평생을 바친 신한승은 조선일보 기사를 보며 중국에 가져온 기원과 권력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신한승이 얼마나 책건에 큰 애정과 헌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신한승은 책건의 정립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서인지 책건의 인간문화재로 인정되고 불과 4년 후 1987년 7월 2일 신한승은 타계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동년 7월 23일에 제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던 스승 송덕기도 타계하였다.

술다가, 신라를 두 분의 인간문화재가 남기고 간 태권과 태권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은 태권이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학술성과 예술성을 가진 우리의 유일한 무예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현대 태권사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후 태권은 보유자가 없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 오다가 다행히도 1995년 6월 1일 궁정화가 2대 태권 인간문화재로 인정되면서 다시 권관점을 맞이하게 되며, 2013년 7월 17일 개인공백에서 단체공백으로 전환되면서 태권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되면서 문화재청의 공식 관공단체로 관공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태권보존회의 모든 권수자들이 함께 태권을 전승, 보급하게 되는 기쁨을 마련하게 되었다.

III. 태권의 무형문화재적 가치

문화재 보호법(법률 제17409호) 제2조(정의)에 의하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입증받아서 지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무형문화재의 가치는 유형문화재와는 다르게 생겨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는 점차적으로 나뉘어지고 발전하면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재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적 신물의 개념을 함께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무형문화재의 가치는 유형문화재와는 다르게 정제적인 가치 보다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문화적 가치의 범주에는 역사적, 문화적, 상징적, 사회적, 정신적, 심미적 가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태권의 가치를 살펴보면 고구려시대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해오던 태권을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는 권공의 덕을 잇는 가치 즉, 역사적 가치를 들 수 있다. 역사적 가치가 없으면 문화재로 지정될 수조차 없으므로 역사적 가치는 문화재의 첫 번째 가치이며 문화재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태권의 문장을 보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공농임으로 한민족의 문장을 표현하는데, 부드럽고 곡선적이며 리듬감이 있는 문장으로 상대를 때리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순간까지, 상대를 제압하여 다치지 않게 하는 태권만의 독창적인 문장이 지닌 문화적 가치가 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교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적 가치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태권부터 태권은 동리 간에 권을 나누어 상대 비승과 건주기를 통해 협공과 대공단결의 기세로 활용된 것으로 보아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경쟁성을 반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태권은 태권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로 묶어주는 단결과 협공의 뜻을 마련하기도 하며, 또한 태권 하는 사람과 관공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하므로 태권의 사회적 가치는 매우 높으며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책건의 수련은 심신 수련을 모두 중시하여 신체의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수련도 중시하고 있는 데 명상, 호흡법 등을 통해 경신적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정신적 가치도 뛰어나며, 책건의 동작을 보고 있으면 무예지만 상당히 예술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책건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인 가치는 공인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 외에도 책건의 학문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도 간과할 수 없는 데 옛 문헌과 옛 그림을 통해 책건의 학문적 기원과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대학과 각 지역에서 책건을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육적 가치는 풍부하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력이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책건의 무형문화재적 가치는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적 상황과 환경적 변천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것으로 더욱 다양하고 주관적이며 변화적인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IV.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세계의 인류무형유산으로 확장

유네스코는 유형문화재에 국한된 보호 활동에서 벗어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취지에서 무형유산보호협약이 2003년에 채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문화유산의 범위가 확장되고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무형유산은 정체성의 고양과 문화 다양성을 전제로서 인류의 창조성을 촉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근본적인 인간 삶을 개선하기 위한 무형유산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절제해야 할 것이 무형유산의 위상과 가치는 지방무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각각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런 순서로 등급화되거나, 혹은 인류무형유산의 단계가 본연의 의미를 퇴색하여 해당 국가의 국제적인 최상 경질에만 치우쳐서 소모적인 경쟁의 구도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 해당 문화유산이 국내에서만 인정받은 것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과는 사뭇 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온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확장되었다는 의미는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무예 부문에서 최초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책건의 의의와 가치는 더욱 의미가 깊으며, 책건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의 정체성을 높이고 인류의 창조성과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 기대된다.

또한 책건이 내포하고 있는 상대의 배려와 상생 그리고 호의성의 원칙을 책건 수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세계의 각국과 다양한 민족들이 상호 존중하고 평화를 감당하며 삶의 길을 노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숙명을 충족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거짓됨이 없이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책건 본연의 참신인 '흙' 정신은 갈등과 다툼을 꺾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의 원천이 될 것이며, 책건 통한 문화적 소통과 국제적인 교류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하는 지구촌을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무형유산은 유형문화재에 비해 경제적, 상업적 가치가 높지 않아 권 세계적으로 인감 받은 문화유산도 해당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완성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유네스코라는 특정한 단계뿐만 아니라 현세대를 살아가는 일반인, 관공무원, 기업, 학교 등 각계각층이 함께 힘을 모아 무형유산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전승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백제의 무형문화재 자질과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백건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며 가장 가치 있는 업적이고, 향후 백제 100년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한 획이다.

그렇지만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백건의 보존재원과 보존기술은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지키지 않으면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문화재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이며, 반대로 전통만 지키고 후대에 전해주지 못하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존과 보전의 의미와 방법을 정확히 분석하여 백건의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의의를 토대로 세계의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고, 인류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며 올바르게 전승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은 현세대와 후세대가 이루어야 할 소임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전통 활쏘기의 기원과 변천

요약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전통 활쏘기는 2020년 7월 30일 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되면서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다. 우리 활쏘기는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전통무예로서 우리의 민족사는 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사냥, 수렵, 군사수단 등으로 활을 위한 수단으로 활쏘기에 능했다. 활쏘기는 고대국가로부터 지도자의 기본덕목이었고 종족수단으로 존재했다. 고구려의 신조 동맹성왕(神祚同盟成王)의 활습지와 조신을 건국한 대조 아실제의 천왕의 궁술 경기는 국가의 보위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주변국들에 경희의 대상이 됐다. 이런 점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민족을 동이(東夷)라고 한 것에서 증명될 수 있다. 동이의 어원은 대공(大工) 즉 큰 활을 뜻하기 때문에 동쪽의 활 활 쏘는 민족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활쏘기가 한민족의 표상으로 유구한 역사와 함께한 이유는 주작의 대학살구서(大鶴殺仇書)에 갈려진 유가적 교육관인 육예(六藝) 중 사예(射)로 숭상했던 내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정암(正岩)과 신라 화랑도를 통해 심신수련(身心修練)의 교육적 도구로 사용됐고, 고려와 조선시대로 이어진 과거제도를 통해 입신양명을 꿈꾸는 훈신으로서의 지식과 무인으로서의 활약을 두루 갖춘 무장관(武將官)의 교육적 도구로 존재했다.

활쏘기에는 궁도구제훈(弓道九制訓)과 비슷한 정간배례(正簡背禮), 김궁계원칙(金宮界元勅) 등과 같은 우리 민족 고유의 유향 사상적 기풍의 녹이있는 사풍이 존재한다. 궁도구제훈은 활을 쏘는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절과 활쏘기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관한 9가지의 경계할 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에덕행(仁德行), 성실감손(誠實減損), 예의엄수(禮義嚴守), 자중질조(自重質調), 정심양기(正心養氣), 엄격과 감행(嚴格과 敢行), 순사무원(順事無怨), 분원순자(分怨順子), 학반대궁(學半對宮), 김궁계원칙 또한 활쏘기를 하는 동안

1. 정간배례(正簡背禮)는, 이 명은은 활을 쏘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활을 쏘는 자세가 바뀌면 활의 기복이 생기며, 활은 활의 무게에 따라 흔들리며 활의 방향이 달라진다. 활을 쏘는 자세는 활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2. 고구려의 유가적 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훈(訓)의 교육(教育)의 도구로 사용됐고, 고려와 조선시대로 이어진 과거제도를 통해 입신양명을 꿈꾸는 훈신으로서의 지식과 무인으로서의 활약을 두루 갖춘 무장관(武將官)의 교육적 도구로 존재했다.
3. 고구려의 유가적 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훈(訓)의 교육(教育)의 도구로 사용됐고, 고려와 조선시대로 이어진 과거제도를 통해 입신양명을 꿈꾸는 훈신으로서의 지식과 무인으로서의 활약을 두루 갖춘 무장관(武將官)의 교육적 도구로 존재했다.

스스로 점검해야 할 원칙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의 활은 작궁²⁴⁾으로 소나 사슴의 뿔을 이용해 만든 활을 사용해 우수한 기술을 자랑해 주변국에서도 맥궁²⁵⁾은 우수한 활로 평외의 대상이 됐다. 고구려무용총 수렵도에서도 이러한 작궁의 효율성이 나타나 있다. 활쏘기는 백제와 신라에서도 원사전쟁무기로 각광을 받았는데, 기노²⁶⁾나 모노²⁷⁾는 수렵나 모의 형태로 이동성과 파괴력을 증가시킨 기술로 발전했다. 신라시대에는 중국 당 태종이 최뇌 제작기술을 전수했으나 기법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최뇌 기술이 전승됐고, 신기전과 같은 화약류 무기가 개발했으나, 우왕 6년(1380)에 왜구가 침략했을 때 활쏘기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다고 한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전쟁의 4대 불가론 중 '우기에는 활이 풀려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고려의 주력 무기가 활쏘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성계는 전일의 궁술능력을 가진 고려의 수장이었고 그의 활쏘기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는데, 궁면활 따 요동정벌 시 오녀산성에서 적 장을 활로 개발했다는 내용도 있다.

서해 유성돈은 '우리민족이 활쏘기를 세호하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함이며, 활쏘기를 우리나라의 특기도 칭할도 비로 이 때문이다.'라고 했다. 설로 어탁은 조선의 궁사가 동방에서 최고라 하여 조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무기가 활쏘기였고 가장 민중화했던 무예가 궁술이었다는 점이 여러 사료를 통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원진제반과 정유제반 때 혼포군이 등장하여 전시에 사용됐지만 활쏘기는 여전히 원사무기²⁸⁾의 효율성이 지속됐다. 특히 일진제반 때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수군들에게 활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원거리 불화살 공격으로 적의 기선을 제압한 후 주력함으로 공격해 난병정에서 승리를 이룬 원동력이 됐다. 정조 6년(1782)에는 군비 중 활의 보유량이 이전과 유사하게 유지될 정도로 중요한 무기도 인식됐다. 숙종 때는 군략영의 5군영 병사 선발을 위한 과목으로 독전, 유염전, 관전, 기갈, 조총, 기예, 무장 등으로 활쏘기가 넓은 영역을 차지하여 병사 선발에 중요한 항목이었다.

조선시대의 활은 목적에 따라, 전시용, 수렵용, 연아용(연회용), 그리고 습사용으로 구분된다. 재료 길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과거의 전시, 초시, 복시에 사용된 길이 160.65cm 정도의 절량궁이 있었고, 연아용인 큰 작궁으로 예궁이 있었고, 목궁, 원궁, 월대궁, 고, 작궁, 장궁 등이 있었다. 화살은 초시와 복시의 과거에 사용된 것으로 무게 8관(30g)으로 240보의 사거리를 가진 목적이 있었다. 활전에는 육합전, 아합전, 살전, 예전이 있었고, 예기살인 관전, 마상용의 동계살, 최로 만든 수살전에 합선 파괴용으로 무노를 사용해 쏘는 장군전, 가는 대로 만든 서전, 비드나무 축으로 된 요엽전 등이 있었다.

활쏘기는 개화기 갑오개혁 이후 조선의 과거제도 속에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했던 무과사취제가 폐지되어 사제가 몰락하게 되기도 했다. 이때 관습사정²⁹⁾, 등과정³⁰⁾을 비롯한 사실사정³¹⁾이들이 폐쇄됐다. 이와 함께 활과 화살을 제작하던 궁장과 궁시장의 역도 단절되어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전승되는 형태는 작궁과 유염전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종 광무 3년(1899)에는 활학정³²⁾이 건립되어 활재의 취업을 나타내고 민족적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기능을 했다. 활학정은 황제의 활터를 뜻하는 의미였다. 김계감삼기 한반도 문화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관동문화유산으로서 그 맥이 이어져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은 체육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활계감삼기에 조선궁술회의 초대회장 성문영(1870~1947)의 주도하에 이종화(1881~?)가 김원환

'조선의 궁술'은 활약할 전염병에 관한 사실이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활쏘기 활동이 면면히 이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1909년에 발족한 사궁에는 이상필과 이동훈이 발기인이었고, 1928년에 창립된 조선궁술연구회는 성운성이 초대회장을 했다. 이 외에도 경성궁술회(1916), 조선궁도회(1932) 등이 결성되어 일제의 탄압으로 제약을받지만 대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다. 1920년부터 해방 전까지 개최된 주요 활쏘기 대회들을 살펴보면, 만경궁술대회, 동아일보선속기념대회, 전조선궁술대회, 북조선궁술대회 등 170여 회의 크고 작은 대회들이 개최됐다.

해방이후 활쏘기는 1946년 창립된 조선궁도협회가 대한궁도협회로 개칭되어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우리의 활쏘기는 당궁의 도입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떠꼈다. 특히 인권의 체육교사 석봉근은 1959년에 서호장에서 양궁연습을 한 기록이 있다. 활쏘기는 양궁의 뒤를 이어 1970년에 전국체전 종목으로 정식 승인됐다. 해방이후 개최된 대표적인 대회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대한궁도협회장기 대회, 대중경기 시도대학 궁도대회, 충무공탄신기념 전국궁도대회, 유공제 활쏘기 대회, 명궁대회, 전국체전, 사투대회 및 어르신 대회 등이다.

현재 우리의 활쏘기는 대한궁도협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궁도협회와 아르헨티나의 1개 해외 지부와 연계하여 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1년 현재 전국 활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85개의 사당이 있고, 그다음으로 경남 64개, 전남 43, 강원 35, 경북 34개 등 총 387개의 활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에는 국궁교수회가 창립되어 전문 활쏘기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국궁대회를 개최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학술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7년에는 한국대학궁도연맹이 결성되어 대회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활쏘기 문화에 관한 학술적 활동과 관련 교육 및 연구,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국제 문화협력, 남북한 교류, 청소년 활쏘기 문화 보급 및 활성화 등을 목표로 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가 창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 전통 활쏘기의 역사적 가치는 예로부터 생존의 필수적인 도구로 생성되어 발전되어 고대사회의 중세 때에는 원사무로려의 유용성을 발휘하고 무과시위에 의한 입신양명의 훌륭한 도구로 존재했다는 점이다. 원궁하는 우리 고유의 자궁은 고대에서 현재까지 그 제작방법이 전승됐고, 관건은 우리민족의 비밀병기도 들어죽으로 칭하게 된 근거가 된다. 조선시대에는 훈포유와 조공의 등장으로 효용성이 반감했으나 자궁과 유립전은 현재까지 전승된다. 활쏘기는 고대로부터 궁술적 움직임에서 인도를 삼천리는 교육적 도구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됐다. 일제강점기에는 문화말살 정책으로 활쏘기가 종래했으나 원민족의 정체성을 표방하면서 유지됐다. 활쏘기는 한국 한민족 고유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내포한 문화유산이다 하겠으며 현재까지도 양궁에서의 선관을 포함하여 활 쏘는 민족으로 인식된 붉은 번번히 내려오며 축적되어 전승되어온 역사와 우리 고유의 우수한 사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겨루기의 시작, 전북 태권도의 가치

최윤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전 세계 곳곳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태권도를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이하 WT)에 아프리카 52개국과 아시아 43개국, 유럽 30개국, 오세아니아 19개국, 아메리카 45개국 등 5개 대륙 210개 국가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WT 회원국 수가 유럽 193개국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 206개국보다 더 많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태권도는 이제 세계인이 사랑하는 소중한 인류 무형문화 자산으로 빛을浴하였다.

태권도는 올림픽을 통해 성장하였다. 태권도는 1988 서울 올림픽과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시범종목(Demonstration sport)을 거쳐 2000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종목(Official sport)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에 더해 태권도는 2016 리우 올림픽과 2021 도쿄 올림픽에서 핵심종목(Core sports)으로 채택되었다.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2012 런던 올림픽 종목 결정과정에서 태권도는 어렵게 잔류가 결정되었다. 2013년 IOC 집행위원회에서 태권도의 퇴출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일본과 중국이 자국의 무술인 가라테와 우슈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가라테는 자국에서 열린 2021 도쿄 올림픽에서 공대인 '가라'와 대인 '기'에 '테'로 구분되어 정식종목으로 태권도를 치렀다. 3년 뒤 개최될 파리 올림픽에서 제외된 가라테는 올림픽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개최된 중국의 우슈도 정식종목 채택에 노력하고 있다. 올림픽의 동생격인 아시안게임에서 우슈는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 이후 지속적으로 정식종목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와 가라테, 우슈가 올림픽 종목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IOC는 경쟁력 없는 유사 종목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주위를 겸하기 위해 유사 종목과 차별화된 태권도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굴하고 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태권도가 올림픽을 통해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승패를 판단하는 경기화(Sports)로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의 무술은 자기수련을 목적으로 동세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반해 태권도는 겨루기를 통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전, 태권도 발전은 국가권을 중심으로 시류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에 반해 겨루기가 시작된 전라북도 태권도의 업적과 가치는 도외시되었다. 본 심고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무형문화재화 무예, 그 특별한 만남을 다다' 특별전을 맞아 태권도 성공의 밑거름인 겨루기가 태동했던 전북의 태권도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전라북도 태권도 도입

수련과 액션 중 수리 민족은 수련은 고유무술을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의 전통무술은 일제강점기에 그 맥이 단절되었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이후 전통무술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전통무술의 금지는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더불어 무장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독립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2011년 무술 가운데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초로 등재된 태권도 일제강점기 동안 음성적으로 전승되어오다 1960년대 이후 복원되었다.

따라서 태권도가 시작된 시기도 1945년 해방 전후이다. 초기 태권도를 시작한 정도관과 안무관, 안무관, 장무관, 송무관 등 5대 기관도장은 1944년부터 1947년까지 1~2년 시간차를 두고 짧은 기간에 생겨났다. 당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개관한 기관도장들은 자본자세, 풍세, 격려, 겨루기를 수련방식으로 삼았다. 이때 겨루기는 상대방을 직접 가격하지 않는 간접타격을 원칙으로 했다.

5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기존의 관으로부터 파생된 관이 생겨나 40여 개의 관이 난립하게 된다. 분화된 태권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로 1961년 '대한태수도협회'를 거쳐 1965년 '대한태권도협회'(개칭)로 통합되었다. 1972년 태권도중앙도장인 국기원이 개원할 당시에는 기존 5대 관에 정도관, 오도관, 안무관, 장덕원이 추가되어 9개의 관으로 정비되었다.

1940년대 기관도장을 중심으로 수도관에 자리를 잡은 태권도가 이른 시기에 전북지역으로 보급되었다. 1946년 3월 3일 서울에서 개관한 안무관의 군산 지관이 1년여 후인 1947년 5월 개관하며 전북의 태권도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전북의 태권도는 안무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 유도를 수련하고 일본 유학생활 가리태를 수련한 권상집이 서울 소격동에 '조선안무관' 문술 인적후 관원 1번 배명기와 2번 전일집이 입관하였다. 전일집은 권상집 초대 관장의 건물생으로 이른 시기에 태권도를 수련하였다. 동아일보 1946년 7월 23일자 기사 중급 승급자 명단에서 전일집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안무관에서 태권도를 익히던 전일집은 군산 세관 보안담당자로 발령을 받으며 전북으로 이주하였다. 밀수가 유행하던 해방정국에서 세관 보안담당자는 발포권을 가진 막강한 자리였다. 군산에 등지를 둔 전일집은 군산시 병화동 9-60(대략도 12)번지에 위치한 군산종합체육관에서 안무관 지관을 개관하였다. 종합체육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태권도는 여러 종목이 한 곳에서 시간차를 두고 공간을 공유하는 여러 스포츠 종목 가운데 하나였다.

해방 이후 관경을 거처며 안무관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된다. 권상집 초대관장이 6·25전쟁 시기에 생방을당하며 안무관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윤계영과 이준우가 뒤를

두합하이 연무관을 '지미로운 길'을 뜻하는 지도관(地舘)으로 재개관하였다. 지도관 1대 관장인 윤계병은 품새와 불술을 주로 수련하고 지도하였고, 2대 관장 이준우는 겨루기를 주로 수련하였다.

서울에서 연무관이 지도관으로 탈바꿈하던 시기에 전북에서도 지도관이 전주에 진출하며 변화가 이루어진다. 1953년 4월 1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62-8번지(전주대사당길 28-7)에 준공된 전북체육관이 7월 20일 개관하였다. 초대 관장을 맡았던 유수복 전북도회원의 초청으로 전일섭 관장이 10월 22일 태권도 사범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전북체육관은 태권도와 억도, 복싱, 기계체조, 레슬링 등 5종목이 같이 수련하던 종합체육관이었다.

전북체육관에서 지도관 태권도는 본격적으로 꽃 피우기 시작했다. 전북체육관에서 태권도 강습은 오후에 1부부터 3부까지 하루 세 번 이루어졌다. 수련생들이 주로 고등학생과 성인들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하교한 오후 4시부터 강습이 시작됐다. 당시 한 부의 운동시간은 1시간으로 기본기와 품새, 겨루기 등을 수련했다. 전북 지역의 지도관에서 태권도 훈련방식은 한 명의 사범이 여러 명의 관원을 똑같이 지도하는 원개 방식과 달랐다. 사범과 여러 명의 수단자들이 유급자들을 일대일로 가르치는 맞춤형이었다.

연무관에서 태동된 전북 태권도는 지도관으로 재개관한 이후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발전시켰다. '태권도 발전기'에서 장기혁은 "조선연무관은 서울에서 태동했지만 단제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은 전북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도관들을 통해 이뤄졌다"고 기술했다.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일섭 관장은 1971년 제2회 태권도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심사평에서 "본 회의 창설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북태권도협회를 이끌어 왔으며, 태권도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가장 많은 선수를 출전시키 왔으며 500여 명에 달하는 입상자를 배출, 지도공적이 크고 두드러졌다."는 수상 이유를 밝혔다.

3. 태권도 겨루기의 원형

1961년 태권도협회가 체계를 갖추기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겨루기는 상대방 신체에 닿기 전 멈추는 약속태련으로 이루어졌다. 약속태련은 한자로 '손자발식' (手子 발식), 일본어로 '손도메' (手止 발식) 이라 부른다. 약속태련은 실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관정이 어렵고 줄어드 멀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북 지도관도초기에 간접타격 방식으로 수련하였다. 하지만 전주에 중지를 둔 지도관은 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직접타격으로 겨루기 방식을 변경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약속태련으로 수련했던 반면 전북 태권도는 실제 상대방을 가리키는 실전 겨루기가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전북 지도관에 입관하면 첫 한 달 동안 약속태련을 연습하지만 한 달 후 바로 실전 겨루기를 실시했다. 장원식 전 국가원장은 태권라임미디어와 인터뷰에서 태권도 경기화 이전 겨루기에서 창도관과 송무관 등은 끊어 풀지만 지도관은 직접 타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유병을 전북 지도관 본관 1대 사범에 따르면 1961년 태권도협회가 창설되고 첫 국회의원사당에서 열린 첫 대회에서 상대방인 경남팀에서 "외 배리나"며 창의를 했다.

실전 겨루기를 알기했던 50~60년대 경기화 초기, 전북 태권도 겨루기는 지금의 겨루기화 많이 달랐다. 당시 태권도는 실전 무술로 상대방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위험적인 무술이었다. 매치기

와 발꿈치 차기 등 다양한 기술을 허용했던 당시 권복 태권도는 현재의 이른 격투기와 유사했다. 초기 태권도 격투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가 아니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고등학교이나 20~30대 청년 남성들이 주도 수련하였다. 전주고등학교 시절부터 태권도를 수련한 최영철 전 경희대 태권도학과 교수는 “그 당시에 한번 치면 손발이 굵어지는 줄 알았어. 죽을 만큼 위험한 운동”으로 기억했다.

격투기 수련은 연령과 실력에 관계없이 모든 관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연속적으로 대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장원수 전 전북태권도협회 권투이사는 “대연시간 그림 유급자들 죽을 맞이치, 살살 끝무니 빼고 유급자 서고 유급자 서고 ‘저릿 경쾌’ 대연 한번 하고, ‘바퀴’ 이렇게 죽 돌려”라며 당시 모습을 설명했다. 이러한 수련 방식으로 수련생들은 상급자나 상위 계급의 관원과 반복적으로 겨룸으로써 스스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수련 방식은 초기 격투기 경기 방식에서 단체 승발전으로 안착된다. 승발전(배틀)은 단체전에서 한 선수가 승리하면 상대팀 선수와 계속해서 겨우는 경기 방식이다. 주로 지도관에서 사용했던 단체 승발전은 각 팀 대표선수들이 5명씩 나와서 계장과 상관없이 겨우는 방식으로 한 선수의 실력이 뛰어나면 상대팀 5명 모두와 연이어 대결할 수도 있었다. 전북 지도관에서 한 명이 여러 명과 차례로 대련을 실시하던 훈련 방식이 승발전의 경기방식으로 발전되었다. 단체 대련과 승발전 경기방식은 지도관 관원들의 격투기 실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위 계급의 선수들은 기술을 변형시켜 신체적 차이를 극복해야 했다. 유기대 전 전북태권도협회장은 “나 같은 경우 플라이급인데 헤비급하고도 붙어 다 나보다 큰 사람들과고만 붙게 돼. 그래서 몇가지 기술도 내가 개발한 게 있는데, 상대가 앞차기 박으러다가 발꿈을 맞는 거지”라며 기술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조권선의 앞발 돌려차기, 박연기의 앞발 앞차기(덜발 박발총 공격), 유철환의 앞차기 등이 유명했다. 결과적으로 전북 지도관에서 다양한 상대와 끊임없는 격투기를 통해 우수 선수들이 많이 발굴됐다.

실전 격투기를 통한 경기와 과정에서 전북 태권도는 발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경기와 초기 전북 지도관은 앞차기 위주의 빠른 공격을 주로 언어했다. 앞차기는 다른 기술에 비해 공격 속도가 가장 빠르다. 준비 동작이 적고, 동선이 짧은 앞차기가 격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득점 방법이다. 이에 반해 다른 지역 태권도강들은 빠른 공격보다 막대 대련으로 인한 몸이 맛있는 앞차기 등을 주로 수련하였다. 장원식 전 국가원장은 지도관이 좋은 실력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더큰 도장이 앞차기 위주로 발차기를 중요시한 반면 지도관은 앞차기를 중요시했거든. 앞차기는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순발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최영철 전 교수는 1963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다른 지역 선수들은 어소롱처럼 기합을 지르거나 몸을 잡는 선수들이 많았다고 기억했다. 현재 태권도 격투기 준비 자세도 이 당시 전북에서 완성되었다. 태권도 격투기에서 빠른 움직임과 정확한 타이밍은 효과적인 공격을 이끌어낼 수 있다. 때문에 유연한 움직임과 균형 잡힌 중심이동이 필수조건이다. 더불어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적절한 지지면(Base of support)과 무게 중심의 안배(Center of gravity)가 필요하다. 하지만 변음이 너무 많아 격투기에 부적합하던 준비 자세를 당시 전북 지도관 사범이던 이순환 전 대한태권도협회장이 관두 기술을 결합시켜 지금과 같은 준비 자세로 발전시켰다. 이순환 회장은 “당시 준비 자세는 얼굴이 많이 비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편발을 올렸어.”라고 설명했다. 이순환 사범에게 배웠던 최영철 전 교수는 “이순환 회장이 권투 몸으로 지금 격투기 몸을 고친거지. 이 자세에서 비로 막고,

바로 배릴 수 있었다.”고 관습했다.

전북 태권도의 단기는 태권도 전용 체육관으로 이어졌다. 1957년 전북 지도관 본관은 당시 최상 동이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108(관라길2길 35)에 태권도 전용 체육관으로 독립했다. 전북 지도관 본관은 1959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28-2(화원1길 49)로 이전하여 태권도 겨루기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전용 체육관에 더불어 지도관은 전북 시군에 태권도를 보급했다. 시군의 태권도 보급은 겨루기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는 일반화로 작용했다. 군산에서 시작된 지도관이 전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군산과 전주 라이벌 구도도 경쟁의식을 부추긴 요인이다. 전북 지도관은 수많은 겨루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가장 권위 있는 대회는 전북 지도관 개관일인 10월 26일에 개최된 ‘추기 선수권대회’였다. 군산과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까지 라이벌 구도에 가세하여 지역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김학중 군산시 태권도협회 고문은 “전주에서 군산팀이 이기기면 전주팀이 머스터님까지 찾아와서 밭세를 주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경기화를 위해 승패를 판단할 수 있는 겨루기 규칙이 필수적이다. 장원석 회장은 경기규칙이 제정될 때 상황에 대해 “협회가 구성되면서 경기화 하자, 스포츠화 하자 이렇게 된 것이며, ... 태권도를 스포츠화하기 위해서 겨루기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겨루기를 하다 보니 심사 때하는 것처럼 시범이 주가 아니라 승패를 가려야 하니 경기규칙이 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960년대 초까지 통일된 규칙이 부재했다. 지도관을 제외하고 약속대연을 수련하던 다른 도장은 승패를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겨루기 규칙이 불필요했다. 반면 겨루기 대회를 활성화시킨 전북 태권도는 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미 체계적인 규칙을 갖추고 있었다. 이순원 회장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겨루기 규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대회를 통해 경기규칙을 체계화시킨 전북 겨루기 규칙을 근용해서 공인 규칙이 제정되었다. 당시 전북 겨루기 규칙은 3명 단체 승발전(후보 1인 추가), 한 선수당 2분 3회전, 심판 4인과 주심 1인, 주력과 받 가격 득점 등이다. 1962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제정한 최초의 겨루기 규칙은 이와 유사했다. 결과적으로 전북 겨루기 규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최초의 경기규칙으로 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4. 결론

전북에서 태권도는 전일섭 관장이 1947년 군산에서 현무관 지도관을 열어 다른 시도보다 이른 시기에 도입되었다. 태권도 도입 초기 전북 지도관은 겨루기를 중심으로 수련하였다. 당시 다른 지역은 약속대련이 주를 이뤘던 반면 전북 지도관은 살판 겨루기를 통한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켰다. 태권도의 경기화 과정에서 전북 지도관에서 사용하던 규칙이 수장을 거쳐 공식규칙으로 채택했다.

요약하면 겨루기를 활성화시켰던 전북이 기술발전과 체계적인 규칙 제정으로 태권도 경기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겨루기를 중심으로 한 전북 태권도의 경기화는 일본 가라테와 다른 차별성을 이뤘다. 가라테는 약속대련인 순도예를 통해 저력된 반면 전북은 실격 타격함으로써 서로 맞았다. 1960, 70년대 전북 태권도 겨루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전북이 현재 태권도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경기화를 통해 전 세계적 스포츠로 성장한 태권도가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개발된 기술이 태권도 기술의 표본이 됐고, 전북에서 제정한 규칙이 첫 경기규칙의 대부분이

됐다. 전북 태평도의 우수성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인정받았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더 많은 전북 태평도의 현장을 방문하고 보존함으로써 가치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전북 곳곳에 태평도와 관련된 장소가 산재되어 있다. 이곳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스토리텔링으로 각화함으로써 태평도 겨우기라하면 전라북도도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1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
National Taekwondo Museum Exhibition

무형문화재와 무예, 그 특별한 만남을 담다

Intangible Arts and Martial Arts -
A Special Collaboration

주최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연출	국립사립학회
협곡	국립사립학회
주최	신원근(태권도 권술교육학), 유정(승화태권도 체육교육과), 최윤경(태권도연구회 연구위원)
요청·코딩	국립사립학회, 신수아·송봉주·정재민
연희	국립태권도박물관
자료장비	신수아·송봉주·정재민
사진	최지영(2020년 8월 21일)
제작	태권도교류재단 55547 신원근, 유정, 정재민, 송봉주, 정재민, 정재민 tel. 063-320-0111 fax. 063-320-0032 www.tjfrk.or.kr
전시·제작	국립태권도박물관 04055 서울특별시 중구 아례로55길 13-9 한아름빌딩 304호 tel. 02-2770-3996 fax. 02-2770-0906
인쇄	한디컴퍼니
발간등록번호	152-00000-00000-00000
ISBN	978-89-7289154-3 05000

2021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
National Taekwondo Museum Exhibition

무형문화재와 무예, 그 특별한 만남을 담다

Intangible Arts and Martial Arts -
A Special Collaboration

주최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연출	국립사립합동
기획	국립사립합동
주최	신촌근대미술관(관세교육학), 육영(영국)대학교(체육교육과), 서울대학교(연구부 연구위원)
주최·코디네이터	국립사립합동, 신수아·송봉주·정재민
연희	국립태권도박물관
주최·장비	신수아·송봉주·정재민
사진	박지영(JEJUN A 스토디오)
제작	태권도진흥재단 55547 신촌로3길, 복수교 합동연수빌딩 302호 Tel. 02-320-0111 Fax. 02-320-0032 www.tjfa.or.kr
전시·유통	국립문화재단 문화재단 04055 서울시 중구 아례로55길 13-9 한아름빌딩 304호 Tel. 02-2770-3996 Fax. 02-2770-0906
인쇄	한디컴퍼니
발간등록번호	152-00000-00000-05000
ISBN	978-89-7289151-4 65000